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7. 05. 30.(화) 12:00	 통계청
	배포일시	2017. 05. 30.(화) 09:00	
	담당부서	통계데이터허브국 행정통계과	
	담당자	과 장: 은 희 훈(042-481-3675) 사 무 관: 김 경 해(042-481-3626)	

신혼부부통계로 살펴 본 혼인 1년 후 동태적 변화 분석

일 러 두 기

- 본 자료는 신혼부부통계*의 자료를 이용하여 시간 흐름에 따른 신혼부부의 변화상을 부가적으로 작성한 종단면 분석 자료임

* 저출산 주요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6년말(2015. 11. 1. 기준)에 처음 공표하였으며,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등에서 수집·보유한 행정자료를 주로 활용하여 작성

- 보도자료는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에 수록
※ 「2015년 기준 신혼부부통계 결과」 보도자료도 함께 첨부

□ 분석내용 및 방법

- 신혼부부의 출산·경제활동·주택소유 현황의 변화상을 살펴 보고, 출산 변화와 경제활동·주택소유 현황의 관계를 분석
- 2015년 기준 신혼부부통계 작성대상 중에서 2년차(혼인신고일이 '13.11.1.~'14.10.31.) 초혼부부 234,704쌍을 대상으로 '14.11.1.(또는 10월) 시점과 '15.11.1.(또는 10월)시점의 현황을 상호 비교

* 구축된 주요 데이터베이스의 활용 가능 시점이 '14년 이후인 점을 고려하여 2년차 부부(혼인신고일이 '13.11.1.~'14.10.31.)를 선정

□ 유의사항

- 자료별 작성시점, 작성기준 등 각 자료의 속성이 다르므로 자료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자료별 주요 특성>

작성항목	활용자료명	기준시점	비고
경제활동 (맞벌이여부)	일자리 행정통계DB	10월	무급가족종사자 및 농림어업부문 일자리는 제외
경제활동 (소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료	연간 (1.1.~12.31.)	상시 임금근로자 대상 (자영업, 일용근로자는 제외)
주택소유	주택소유통계DB	11. 1.	

- 일부 통계표 수치는 반올림한 값으로 하위분류의 합이 상위분류의 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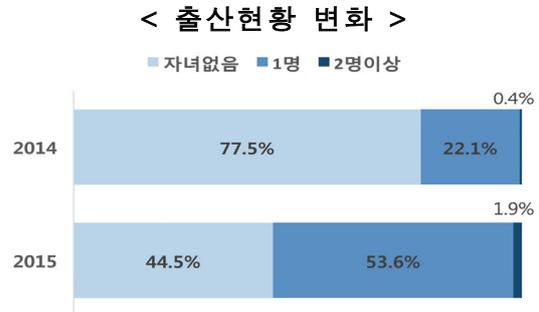
목 차

□ 요약	1
□ 분석 결과	
I. 총괄	3
1. 출산 현황 변화	3
2. 경제활동 현황 변화	4
3. 주택소유 현황 변화	5
II. 출산 변화와 경제활동 현황	6
1. 출산 변화별 경제활동	6
2. 아내의 경제활동 변화와 소득	8
3. 경제활동 상황 변화별 평균 출생아 수	9
III. 출산 변화와 주택소유 현황	10
□ 부록	11
1. 신혼부부통계 작성 개요	12
2. 주요 용어 등 설명	13

혼인 1년 후 동태적 변화 분석 [요약]

1. 총괄 [1년간 출산·경제활동·주택소유 현황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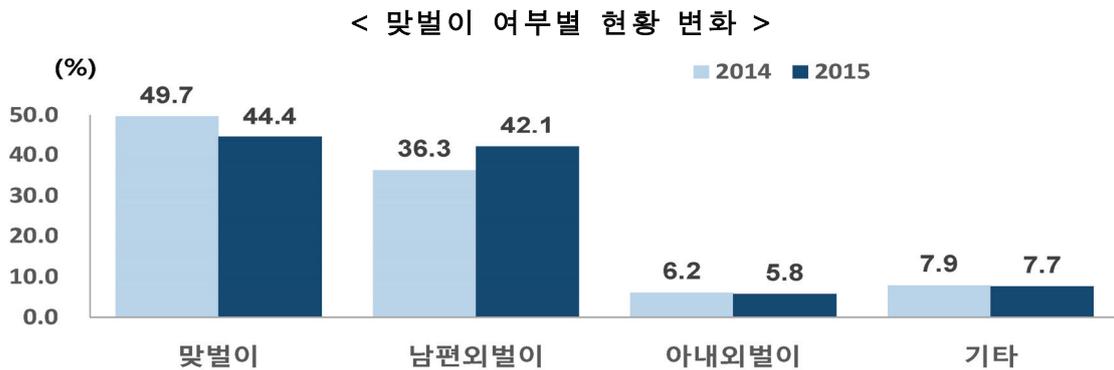
□ (출산 현황 변화) '14년에 혼인한 초혼부부의 자녀 출산 현황을 살펴보면, 자녀가 있는 부부의 비중이 '14년 22.5%에서 '15년 55.5%로 33.0%p 증가



※ 평균 출생아 수 0.34명 증가('14년 0.23명 → '15년 0.5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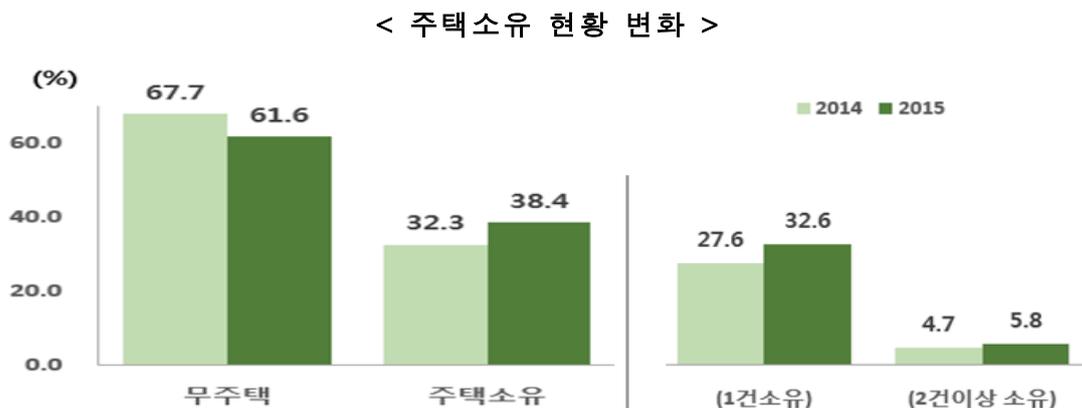
□ (경제활동 현황 변화) 맞벌이 부부의 비중이 '14년 49.7%에서 '15년 44.4%로 5.2%p 감소

※ 남편의 경제활동(맞벌이+남편 외벌이)은 0.6%p 증가하였으나, 아내는 5.6%p 감소



□ (주택소유 현황 변화) 주택을 소유한 부부의 비중이 '14년 32.3%에서 '15년 38.4%로 6.1%p 증가

※ '13년 11월 1일 기준(혼인 전) 주택소유 비중은 24.9% (2년간 13.5%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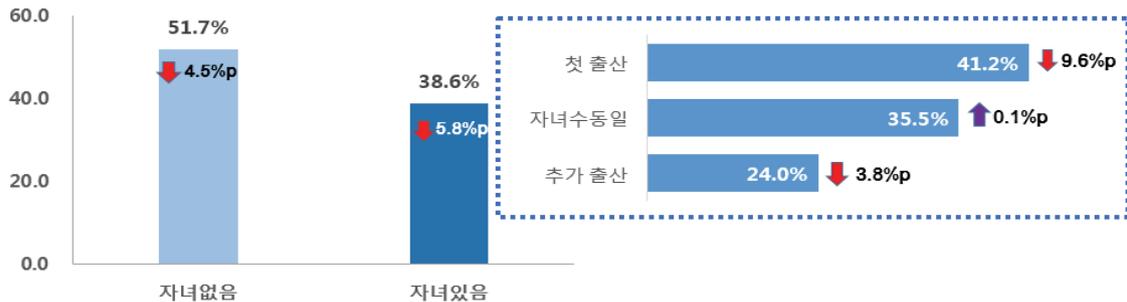
2. 출산 변화와 경제활동 현황 비교

□ '15년 기준 자녀가 있는 부부의 맞벌이 비중은 38.6%로 자녀가 없는 부부(51.7%) 보다 13.1%p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자녀가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연간 출산변화 유형별 맞벌이 비중을 살펴보면, 자녀를 추가 출산한 부부가 24.0%로 가장 낮음

※ 첫 출산부부의 감소폭(△9.6%p)이 다른 출산변화 유형에 비해 큼(전체는 5.2%p 감소)

< 출산 변화 유형별 '15년 맞벌이 비중 >



□ 아내의 경제활동 변화 유형별로 '14년 소득*을 비교하면, 3천만원 미만의 소득구간에 위치한 아내의 경제활동 이탈이 큰 것으로 나타남

아내의 경제활동 변화 ('14년 → '15년)	대상*	'14년 소득구간별 비중		
		3천만원 미만	3천만원~5천만원	5천만원 이상
합계	94,760명 (100.0%)	58.0%	32.2%	9.8%
활동→활동(유지)	77,257명 (100.0%)	51.9%	36.5%	11.6%
활동→비활동	17,503명 (100.0%)	84.8%	13.5%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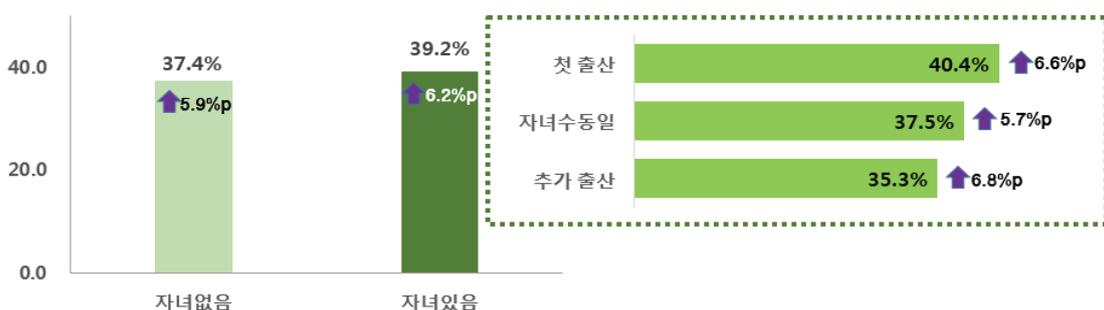
* '14년 10월 기준 상시 임금근로자인 아내를 대상으로 분석

3. 출산 변화와 주택소유 현황 비교

□ '15년 기준 자녀가 있는 부부의 주택 소유 비중은 39.2%로 자녀가 없는 부부(37.4%)보다 1.8%p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첫 출산부부의 주택 소유 비중(40.4%)이 다른 유형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15년 기준 주택소유 증감을 출산 변화 유형별로 살펴보면, 출산이 있었던 부부의 증가폭(첫 출산부부 6.6%p, 추가 출산부부 6.8%p)이 높게 나타남

< 출산 변화 유형별 '15년 주택소유 비중 >



I. 총괄

1. 출산 현황 변화

◇ 자녀가 있는 부부의 비중은 '14년 22.5%에서 '15년 55.5%로 33.0%p 증가

□ '13년 11월 1일부터 '14년 10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하고, '15년 11월 1일 기준 혼인을 유지하고 있는 초혼 부부(이하 '14년 혼인한 초혼부부'라 한다) 23만 5천 쌍에 대해 출산 변화를 보면,

○ '15년 11월 1일 현재 자녀가 있는 부부는 55.5%(13만 쌍)로 1년 전(22.5%, 5만 3천 쌍)에 비해 **33.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평균 출생아 수는 '14년 0.23명에서 '15년 0.57명으로 **0.34명 증가**

○ '14년 11월 1일부터 '15년 10월 31일까지 첫 출산*했거나 추가 출산**으로 자녀수가 증가한 부부는 전체의 **34.1%**인 8만 쌍으로 1년 동안 3쌍 중 1쌍 정도가 출산을 한 것으로 나타남

* 자녀가 없던 18만 2천 쌍 중에서 첫 자녀를 출산한 부부는 42.6% (7만 7천 쌍)

** 자녀가 있던 5만 3천 쌍 중에서 추가로 출산한 부부는 5.0% (3천 쌍)

< '14년 혼인한 초혼부부의 출산 변화 >

(단위: 쌍, 명, %)

2014년 (1차년도)	2015년(2차년도)						평균 출생아 수	
	합계	자녀없음	자녀있음					
			소계	1명	2명	3명이상		
합계 (구성비)	234,704 (100.0)	104,480 (44.5)	130,224 (55.5)	125,864 (53.6)	4,205 (1.8)	155 (0.1)	0.57	
자녀없음	181,910 (77.5)	104,480 (44.5)	77,430 (33.0)	76,603 (32.6)	819 (0.3)	8 (0.0)		
자녀 있음	소계	52,794 (22.5)	- (-)	52,794 (22.5)	49,261 (21.0)	3,386 (1.4)	147 (0.1)	
	1명	51,835 (22.1)	- (-)	51,835 (22.1)	49,261 (21.0)	2,545 (1.1)	29 (0.0)	
	2명	885 (0.4)	- (-)	885 (0.4)	- (-)	841 (0.4)	44 (0.0)	
	3명이상	74 (0.0)	- (-)	74 (0.0)	- (-)	- (-)	74 (0.0)	
평균 출생아 수	0.23							

2. 경제활동 현황 변화

◇ 맞벌이 부부의 비중은 '14년 49.7%에서 '15년 44.4%로 5.2%p 감소

□ '14년 10월 시점과 1년 후 '15년 10월 시점의 경제활동 변화를 살펴보면, 맞벌이 부부의 비중이 '14년 49.7%(11만 7천 쌍)에서 '15년은 44.4%(10만 4천 쌍)로 5.2%p 감소

○ 맞벌이 부부의 감소는 아내의 경제활동 감소*에 기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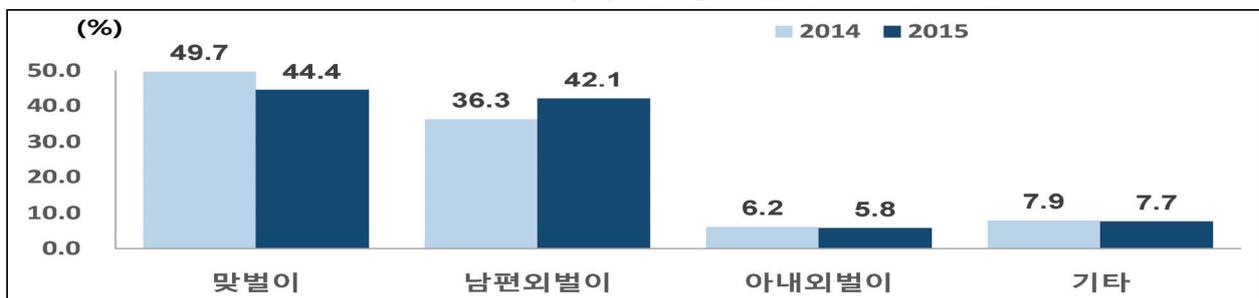
* 아내 경제활동 비중 변화: ('14) 55.8% → ('15) 50.2% [5.6%p 감소]

남편 경제활동 비중 변화: ('14) 85.9% → ('15) 86.5% [0.6%p 증가]

○ '14년에 맞벌이인 부부 11만 7천 쌍 중에서 1년 후 외벌이로 변화된 부부는 2만 7천 쌍(23.2%)임

- 반면, '14년에 외벌이인 부부 10만 쌍 중에서 1만 5천 쌍(15.0%)이 맞벌이로 변화

< '14년 혼인한 초혼부부의 경제활동 변화 현황 >



< 경제활동 변화 현황 >

(단위: 쌍, %)

2014년 (1차년도)	2015년(2차년도)					기타 ¹⁾
	합계	맞벌이	외벌이	남편	아내	
합계 (구성비)	234,704 (100.0)	104,320 (44.4)	112,405 (47.9)	98,792 (42.1)	13,613 (5.8)	17,979 (7.7)
맞벌이	116,538 (49.7)	88,320 (37.6)	27,037 (11.5)	23,257 (9.9)	3,780 (1.6)	1,181 (0.5)
외벌이	99,592 (42.4)	14,964 (6.4)	78,440 (33.4)	70,335 (30.0)	8,105 (3.5)	6,188 (2.6)
남편	85,129 (36.3)	11,048 (4.7)	69,902 (29.8)	68,905 (29.4)	997 (0.4)	4,179 (1.8)
아내	14,463 (6.2)	3,916 (1.7)	8,538 (3.6)	1,430 (0.6)	7,108 (3.0)	2,009 (0.9)
기타	18,574 (7.9)	1,036 (0.4)	6,928 (3.0)	5,200 (2.2)	1,728 (0.7)	10,610 (4.5)

1) 가사, 무직, 미상 등

3. 주택소유 현황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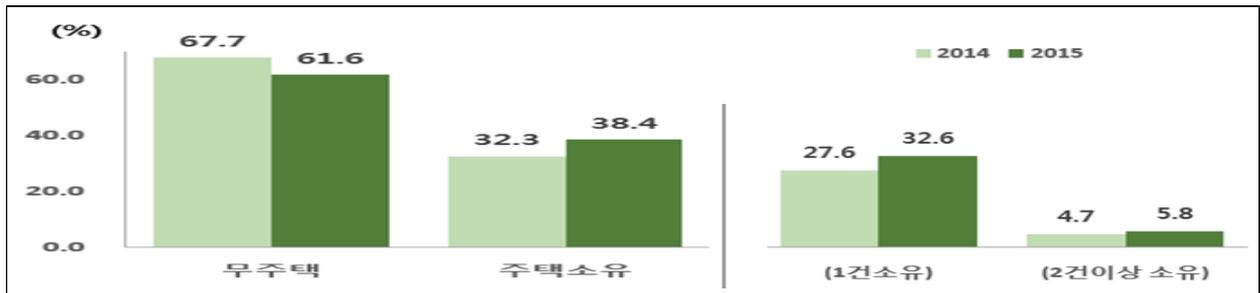
◇ 주택을 소유한 부부의 비중은 '14년 32.3%에서 '15년 38.4%로 6.1%p 증가

□ '14년 11월 1일 시점과 1년 후인 '15년 11월 1일 시점의 주택소유 현황 변화를 살펴보면, 주택을 소유한 부부의 비중이 '14년 32.3%에서 '15년 38.4%로 6.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13년 11월 1일 기준(혼인 전) 주택소유 비중은 24.9% (2년간 13.5%p 증가)

- '14년에 무주택인 부부 15만 9천 쌍 중에서 '15년에 주택을 소유하게 된 부부는 1만 8천 쌍(11.3%)이고,
 - 그 중 1건을 소유한 부부가 1만 7천 쌍(96.9%)으로 나타남
- '14년에 주택을 소유하던 부부 7만 6천 쌍 중에서 '15년에 무주택으로 변화한 부부는 4천 쌍(5.0%)으로 나타남

< '14년 혼인한 초혼부부의 주택소유 변화 현황 >



< 주택소유 변화 현황 >

(단위: 쌍, %)

2014년 (1차년도)	2015년(2차년도)						
	합계	주택 없음	주택소유(소유 물건수별) ²⁾				
소계			1건	2건	3건이상		
소계 (구성비)	234,704 (100.0)	144,634 (61.6)	90,070 (38.4)	76,566 (32.6)	11,172 (4.8)	2,332 (1.0)	
주택없음	158,910 (67.7)	140,879 (60.0)	18,031 (7.7)	17,481 (7.4)	485 (0.2)	65 (0.0)	
주택 소유	소계	75,794 (32.3)	3,755 (1.6)	72,039 (30.7)	59,085 (25.2)	10,687 (4.6)	2,267 (1.0)
	1건	64,835 (27.6)	3,632 (1.5)	61,203 (26.1)	57,392 (24.5)	3,490 (1.5)	321 (0.1)
	2건	9,313 (4.0)	106 (0.0)	9,207 (3.9)	1,629 (0.7)	6,925 (3.0)	653 (0.3)
	3건	1,646 (0.7)	17 (0.0)	1,629 (0.7)	64 (0.0)	272 (0.1)	1,293 (0.6)
	이상						

2) 소유지분과 관계없이 부부가 소유한 주택의 물건 수를 합산. 예를 들어 주택 1호는 남편 단독 소유이고, 다른 지역 주택1호를 아내가 다른사람과 지분 0.5씩 공동소유하고 있을 경우 2건으로 집계

II. 출산 변화와 경제활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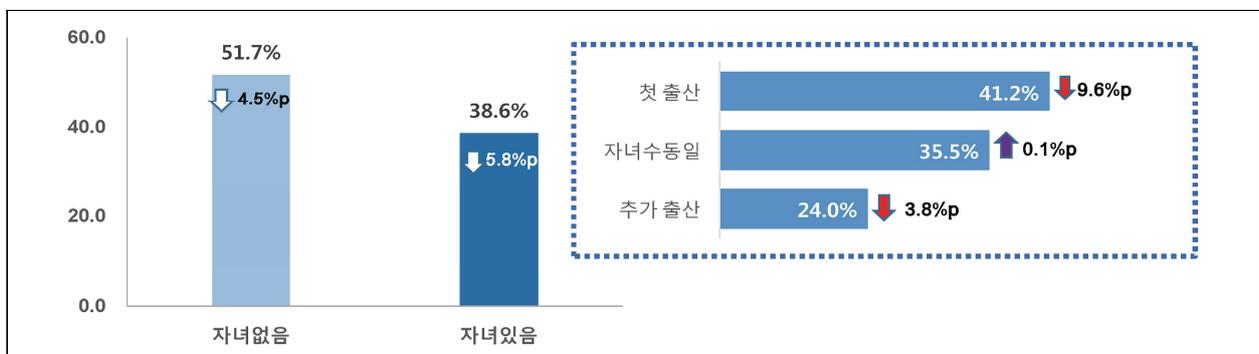
1. 출산 변화별 경제활동

◇ '15년 기준 자녀가 있는 부부의 맞벌이 비중은 38.6%로 자녀가 없는 부부(51.7%)보다 13.1%p 낮게 나타났으며, '14년 대비 맞벌이 비중 감소폭은 첫 출산한 부부(△9.6%)에서 가장 크게 나타남

□ '14년 혼인한 초혼부부의 '14년 11월 1일부터 1년 간의 출산과 경제활동의 관계를 살펴보면,

- '15년에 자녀가 있는 부부의 맞벌이 비중이 38.6%로 자녀가 없는 부부의 맞벌이 비중(51.7%)보다 13.1%p 낮게 나타났고, 출산변화 유형별³⁾로 보면 추가 출산한 부부의 맞벌이 비중이 24.0%로 가장 낮음
- 맞벌이 비중의 감소는 첫 출산한 부부(△9.6%)에서 가장 큼

< 출산변화 유형별 맞벌이 비중 >



- 맞벌이 감소는 아내의 경제활동 이탈에 기인하는데, 첫 출산부부가 '활동'에서 '비활동'으로 변화된 비중(14.5%)이 가장 크게 나타남
- 반면, '14년에 자녀가 있었고 추가 출산이 없는 부부는 '활동'에서 '비활동'으로 변화된 경우(7.8%)보다 '비활동'에서 '활동'으로 변화한 경우(8.2%)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3) '14년 11월 1일 시점부터 '15년 10월 31일까지의 출산현황에 따라 3유형으로 구분

- ① 첫 출산 부부('14년 당시 자녀가 없었고, 이후 자녀를 출산한 부부)
- ② 자녀수 동일 부부('14년 당시 자녀가 있었고, 이후 추가 출산이 없었던 부부)
- ③ 추가 출산부부('14년 당시 자녀가 있었고, 이후 자녀를 출산한 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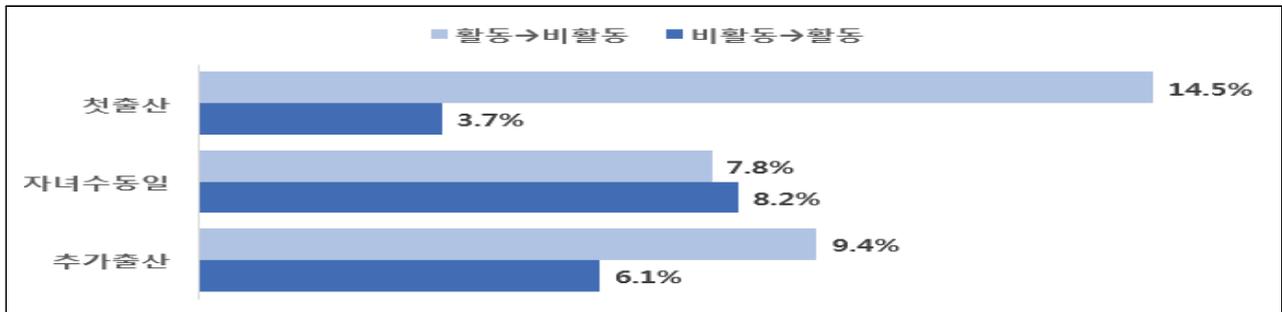
< 출산 변화 유형별 신혼부부의 경제활동 현황 >

(단위 : 쌍, %, %p)

구분 ('14년→'15년 자녀수 변화)	'15년 기준 현황						맞벌이 비중 증감 ('15년-'14년)		
	합계	맞벌이	외벌이			기타*	'14년 기준 맞벌이	증감	
			소계	남편	아내				
합계	234,704	104,320	112,405	98,792	13,613	17,979	116,538	-5.2	
(구성비)	(100.0)	(44.5)	(47.9)	(42.1)	(5.8)	(7.7)	(49.7)		
자녀없음	104,480	54,002	43,221	35,909	7,312	7,257	58,680	-4.5	
	(100.0)	(51.7)	(41.4)	(34.4)	(7.0)	(6.9)	(56.2)		
자 녀 있 음	소계	130,224	50,318	69,184	62,883	6,301	10,722	57,858	-5.8
		(100.0)	(38.6)	(53.1)	(48.3)	(4.8)	(8.2)	(44.4)	
	없음→있음 (첫 출산)	77,430	31,868	40,427	37,186	3,241	5,135	39,336	-9.6
		(100.0)	(41.2)	(52.2)	(48.0)	(4.2)	(6.6)	(50.8)	
있음→있음 (자녀수 동일)	50,173	17,820	27,133	24,224	2,909	5,220	17,792	0.1	
	(100.0)	(35.5)	(54.1)	(48.3)	(5.8)	(10.4)	(35.5)		
있음→있음 (추가 출산)	2,621	630	1,624	1,473	151	367	730	-3.8	
	(100.0)	(24.0)	(62.0)	(56.2)	(5.8)	(14.0)	(27.9)		

* 가사, 무직, 미상 등

< 출산 변화 유형별 아내의 경제활동 변화 >



< 출산 변화 유형별 아내의 경제활동 변화 >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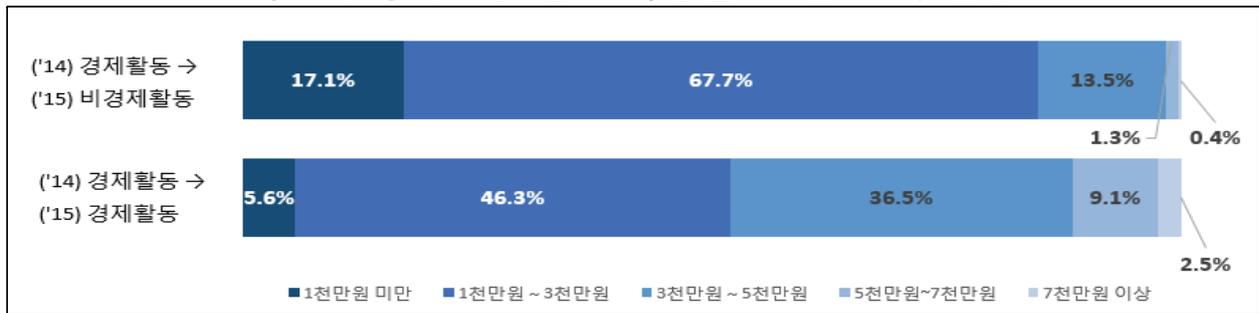
'14년→'15년 출산 변화	합계	아내의 '14→'15년 경제활동 변화						
		활동→활동 (유지)	구성비	활동→ 비활동	구성비	비활동→ 활동	구성비	
합계	234,704 (100.0)	192,018	(81.8)	27,877	(11.9)	14,809	(6.3)	
자녀없음	104,480 (100.0)	84,387	(80.8)	12,472	(11.9)	7,621	(7.3)	
자 녀 있 음	소계	130,224 (100.0)	107,631	(82.7)	15,405	(11.8)	7,188	(5.5)
	없음→있음 (첫 출산)	77,430 (100.0)	63,293	(81.7)	11,236	(14.5)	2,901	(3.7)
	있음→있음 (자녀수 동일)	50,173 (100.0)	42,123	(84.0)	3,922	(7.8)	4,128	(8.2)
	있음→있음 (추가 출산)	2,621 (100.0)	2,215	(84.5)	247	(9.4)	159	(6.1)

2. 아내의 경제활동 변화와 소득

◇ '15년에 경제활동을 중단한 아내의 '14년 소득을 살펴보면, 3천만원 미만이 84.8%로 나타남

- '14년 10월 현재 경제활동을 한 아내 중에서 상시 임금근로자 9만 5천 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 변화 유형별 '14년 소득현황을 살펴 보면,
 - 활동에서 비활동으로 변화한 아내 1만 8천 명 중 연 소득 3천만 원 미만이 1만 5천 명으로 84.8%, 5천만 원 이상은 1.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활동을 유지 중인 아내(7만 7천 명)의 경우 3천만 원 미만이 51.9%, 5천만 원 이상은 11.6%로 나타남

< 아내의 경제활동 변화 유형별 '14년 소득 현황 >



< 아내의 경제활동 변화 유형별 '14년 소득 현황 >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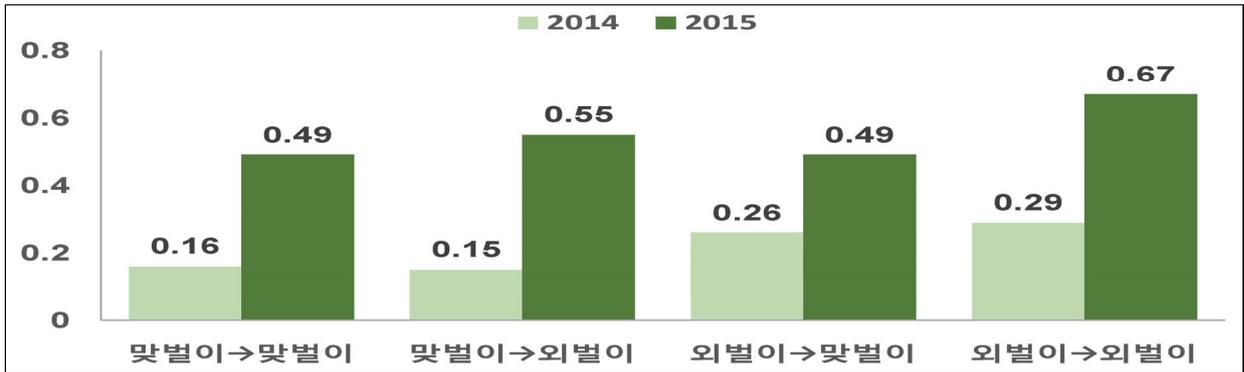
아내의 경제활동변화 ('14년 → '15년)	출산여부별 ('15년기준)	'14년 아내의 소득액						평균 출생아수 ('15년)
		합계	1천만원 미만	1천만원~3천만원미만	3천만원~5천만원미만	5천만원~7천만원미만	7천만원 이상	
전체 (상시임금근로자)	합계 (구성비)	94,760 (100.0)	7,335 (7.7)	47,618 (50.3)	30,535 (32.2)	7,266 (7.7)	2,006 (2.1)	0.50
	자녀 없음	48,188 (100.0)	3,484 (7.2)	23,514 (48.8)	15,930 (33.1)	4,098 (8.5)	1,162 (2.4)	
	자녀 있음	46,572 (100.0)	3,851 (8.3)	24,104 (51.8)	14,605 (31.4)	3,168 (6.8)	844 (1.8)	
활동 → 비활동	소계 (구성비)	17,503 (100.0)	2,995 (17.1)	11,845 (67.7)	2,371 (13.5)	228 (1.3)	64 (0.4)	0.56
	자녀 없음	7,876 (100.0)	1,211 (15.4)	5,180 (65.8)	1,283 (16.3)	156 (2.0)	46 (0.6)	
	자녀 있음	9,627 (100.0)	1,784 (18.5)	6,665 (69.2)	1,088 (11.3)	72 (0.7)	18 (0.2)	
활동 → 활동 (유지)	소계 (구성비)	77,257 (100.0)	4,340 (5.6)	35,773 (46.3)	28,164 (36.5)	7,038 (9.1)	1,942 (2.5)	0.49
	자녀 없음	40,312 (100.0)	2,273 (5.6)	18,334 (45.5)	14,647 (36.3)	3,942 (9.8)	1,116 (2.8)	
	자녀 있음	36,945 (100.0)	2,067 (5.6)	17,439 (47.2)	13,517 (36.6)	3,096 (8.4)	826 (2.2)	

3. 경제활동 상황 변화별 평균 출생아 수

◇ '14년 대비 '15년의 평균 출생아 수 변화를 살펴보면, 맞벌이에서 외벌이로 변화한 부부의 출생아 수가 가장 많이 증가(0.40명↑)

- '14년 11월 1일부터 1년 간 평균 출생아 수 증가 현황을 부부의 경제활동 상황(맞벌이 여부) 변화별로 살펴보면,
 - '15년 기준 평균 출생아 수는 계속 외벌이를 유지하고 있는 부부가 0.67명으로 가장 많음
 - 맞벌이에서 외벌이로 변화한 부부 2만 7천 쌍의 평균 출생아 수가 '14년 0.15명에서 '15년 0.55명으로 가장 많이 증가(0.40명)하였고, 외벌이를 유지한 부부는 0.38명(0.29명→0.67명)이 증가함

< 맞벌이 여부 변화별 평균 출생아수 >



< 맞벌이 여부 변화별 평균 출생아수 >

(단위: 쌍,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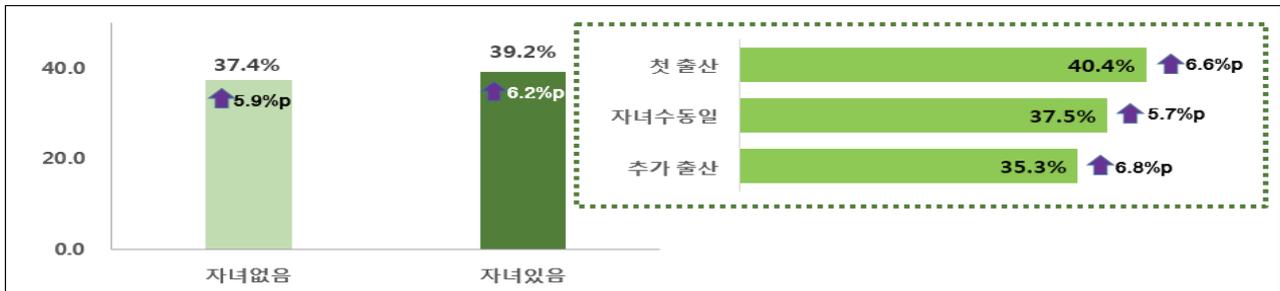
맞벌이 여부 변화 ('14년→'15년)	신혼 부부수	출생아수		평균 출생아수			※'14년(무자녀)→'15년(유자녀)		
		'14년(누적)	'15년(누적)	'14년	'15년	증가	부부수	(비중)	
합계	234,704	53,839	134,754	0.23	0.57	0.34	77,430	(33.0)	
맞벌이	→ 맞벌이	88,320	14,500	43,666	0.16	0.49	0.33	28,379	(32.1)
	→ 외벌이	27,037	4,053	14,952	0.15	0.55	0.40	10,560	(39.1)
	→ 기타	1,181	244	656	0.21	0.56	0.35	397	(33.6)
외벌이	→ 맞벌이	14,964	3,890	7,323	0.26	0.49	0.23	3,277	(21.9)
	→ 외벌이	78,440	22,702	52,348	0.29	0.67	0.38	28,074	(35.8)
	→ 기타	6,188	1,949	4,008	0.31	0.65	0.33	1,913	(30.9)
기타	→ 맞벌이	1,036	357	588	0.34	0.57	0.22	212	(20.5)
	→ 외벌이	6,928	2,577	4,556	0.37	0.66	0.29	1,793	(25.9)
	→ 기타	10,610	3,567	6,657	0.34	0.63	0.29	2,825	(26.6)

Ⅲ. 출산 변화와 주택소유 현황

◇ '15년 기준 자녀가 있는 부부의 주택 소유 비중이 39.2%로 자녀가 없는 부부(37.4%)보다 1.8%p 높게 나타남

- '14년 혼인한 초혼부부의 '14년 11월 1일부터 출산변화와 주택소유 현황의 관계를 살펴보면,
 - '15년 기준 자녀가 있는 부부의 주택소유 비중은 39.2%로 자녀가 없는 부부의 소유 비중(37.4%)보다 1.8%p 높게 나타남
 - 무주택에서 주택을 소유하게 된 부부는 7.7%(1만 8천 쌍)를 차지하며, 주택을 소유하다가 무주택으로 변화한 부부는 1.6%(4천 쌍)임
 - '15년 기준 주택소유 증감을 출산 변화 유형별로 살펴보면, 출산이 있었던 부부의 증가폭(첫 출산부부 6.6%p, 추가 출산부부 6.8%p)이 출산하지 않은 부부보다 높게 나타남

< 출산 변화별 주택소유 현황 >



< 출산 변화별 주택소유 현황 >

(단위: 쌍, %, %p)

구분 ('14년→'15년 출산 변화)	'15년 기준 현황					'14→'15년 주택소유 변화		주택소유 비중 증감 ('15년-'14년)		
	합계	무주택	주택소유			무주택→ 소유	소유→ 무주택	'14년 기준 주택소유 현황	증감	
합계 (구성비)	234,704 (100.0)	144,634 (61.6)	90,070 (38.4)	76,566 (32.6)	13,504 (5.8)	18,031 (7.7)	3,755 (1.6)	75,794 (32.3)	6.1	
자녀없음	104,480 (100.0)	65,429 (62.6)	39,051 (37.4)	33,457 (32.0)	5,594 (5.4)	7,634 (7.3)	1,491 (1.4)	32,908 (31.5)	5.9	
자 녀 있 음	소계	130,224 (100.0)	79,205 (60.8)	51,019 (39.2)	43,109 (33.1)	7,910 (6.1)	10,397 (8.0)	2,264 (1.7)	42,886 (32.9)	6.2
	없음→있음 (첫 출산)	77,430 (100.0)	46,154 (59.6)	31,276 (40.4)	26,721 (34.5)	4,555 (5.9)	6,355 (8.2)	1,278 (1.7)	26,199 (33.8)	6.6
	있음→있음 (자녀수 동일)	50,173 (100.0)	31,355 (62.5)	18,818 (37.5)	15,619 (31.1)	3,199 (6.4)	3,819 (7.6)	941 (1.9)	15,940 (31.8)	5.7
	있음→있음 (자녀수 증가)	2,621 (100.0)	1,696 (64.7)	925 (35.3)	769 (29.3)	156 (6.0)	223 (8.5)	45 (1.7)	747 (28.5)	6.8

부 록

- 1. 신혼부부통계 작성 개요**
- 2. 주요 용어 등 설명**

부록1 신혼부부통계 작성 개요

- (작성목적) 신혼부부에 대한 결혼, 출산·보육, 경제활동 및 주택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저출산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
- (법적근거) 통계법 제18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승인된 일반통계 (승인번호 제101082호)
- (모집단) 매년 11월 1일 기준 과거 5년 이내 혼인신고를 한 부부
- (작성대상) 매년 작성 기준일 현재 혼인관계를 유지 중이며, 부부 중 1명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
 - ※ 종단면 통계 중 혼인상태 변화는 혼인관계 유지와 관계없이 특정년도에 혼인 신고 한 부부 전체를 대상으로 함
- (작성단위) 신혼부부(가구), 개인(남편, 아내, 자녀)
- (활용 행정자료) 혼인·이혼·사망·출생자료, 인구·가구DB, 일자리행정 통계DB, 주택소유통계DB,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료, 보육행정자료(10종)
- (작성항목) 혼인연차, 혼인종류, 혼인연령, 직업, 교육정도, 다문화 혼인, 세대구성, 가구원수, 출산자녀 수, 첫째자녀의 출산 소요기간, 첫째 출산 후 둘째 자녀의 출산 소요기간, 영유아 보육형태, 맞벌이 여부, 임금근로자 소득, 거처유형, 주택소유물건수, 소유주택명의, 주택자산 가액(18개 항목)
- (작성주기 및 기준시점) 연간, 전년 11. 1. 현재
- (작성방법) 활용 행정자료 간에 개인대체식별번호 및 가구고유번호 항목을 활용한 연계·결합방법으로 DB를 구축하여 통계생산

부록2 주요 용어 등 설명

- **종단면 분석** : 동일한 집단을 시간에 따라 관찰한 값을 분석
 - ※ 횡단면 분석 : 한 시점에서 여러 대상을 관찰하여 각 대상간의 차이점을 비교
- **초혼부부** : 남편과 아내 둘 다 초혼인 부부
- **평균 출생아 수** : 아내를 기준으로 한 총출산 자녀수*를 대상 신혼부부 수로 나눈 값
 - * 남편과 아내에게 각각 혼인신고 전 자녀가 있었을 경우 동 자료에서는 아내가 출산한 자녀를 기준으로 출생아 수를 산정
- **출산 변화 유형 구분**
 - **첫 출산 부부** : 2014년 11월 1일부터 2015년 10월 31일 기간에 처음으로 자녀를 출산한 부부
 - **추가 출산 부부** : 2014년 11월 1일 이전에 자녀를 출산하고 이후 1년 사이에 자녀를 출산한 부부
- **맞벌이 여부**
 - 일자리 행정통계*DB에서 신혼부부의 남편과 아내별 일자의 점유 여부를 파악하여 맞벌이, 외벌이, 기타로 분류
 - 남편과 아내가 모두 일자리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맞벌이, 남편 또는 아내 중 한사람만 일자리를 점유한 경우에는 외벌이, 그 외(무직, 가사, 미상 등)는 기타로 분류
 - * 고용·노동 등 일자리 관련 정책수립 및 취업준비자의 일자리 선택에 유용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4대보험 자료 등 13종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통계청에서 작성
 - 무급가족종사자와 농림수산물 생산활동 종사자는 제외
- **임금근로자 소득** : 신혼부부 중에서 상시 임금근로자인 부부(자영업자 및 일용근로자 등은 제외)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료의 전년도 보수 총액을 임금근로자 소득으로 활용